산 오징어순대

(고전2:10~16)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산 오징어순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살아있는 오징어순대라는 뜻이지요.
오징어순대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토속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징어순대를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동해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살아있는 오징어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오징어 속의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그렇게 속이 빈 상태의 오징어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만두소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재료를 섞어서 소를 만듭니다.
두부, 고기, 숙주나물 등 여러 채소들을 섞어 소를 만들어서 내장을 긁어내서 비어있는 오징어 안에 가득 꽉꽉 눌러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서 찜통에 푹 쪄냅니다, 이게 오징어순대에요.

그러면 순대 자르듯 길쭉하게 통으로 되어있는 오징어를 쓱쓱 잘라가지고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바다 향이 나는 간간한 오징어 살에다가 갖가지 맛있는 재료들을 섞어서 집어넣어 쪘으니 그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속초의 바닷가에 드라마 가을 동화의 촬영지로 지금까지도 안내판이 붙어있는 '아바이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바이 마을에 이 오징어순대를 잘 하는 집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속초에 가시면 오징어순대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모습, 비유적으로 말하면 오징어순대와 똑같습니다.
속이 비워지고, 다른 소로 속이 채워지고…
그런데 진짜 오징어순대와 다른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오징어순대라는 얘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신앙인들로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아직까지도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의 내용들은 교회 분파 형성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형성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왜 잘못된 것인가를 밝히고,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씀해가는 중에, 이러한 사도바울의 논의의 키워드가 바로 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답을 찾으려는 지혜의 마음, 지혜를 추구하는 이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파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분파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가짐과 반대 입장에 서있는 것이 바로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한 마음상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연합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사는 마음가짐이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지혜의 마음이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고 답을 찾으려는 아담 이후의 원죄적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중단되었더라도,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정답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답이 우리가 문제점을 느끼고 우리가 찾아가는 중에 도달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정답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을 최선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

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끔 해주는 정답이 매순간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정답은 우리가 어제 읽은 9절에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정답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이라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바울서신을 살펴보면서 계속 느끼게 되겠습니다만,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모든 영적인 생각들은 자신이 삶 속에서 체험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우리를 향한 가르침들이 다 체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 안에서 깨달아진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세상 사랑을 당신의 사명으로 붙잡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그리스도와, 그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은총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루는 삼각지대가 우리에게 약속된 복된 땅 가나안의 지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이 내게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은 측면으로부터 이해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 안에서 이 분파형성에 관한 이야기의 진행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은 나 개인에게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상태, 확정적인 마음상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작정하

는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 본격적으로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앞에 대할 때, 아직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마음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좋아하는 것들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 땅에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좋아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마치 오징어의 내장같이 내 마음에 살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서 살이 돼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는 그게 담겨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것이 없을 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허전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쉽습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에 살이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아내와 사별을 합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왜냐하면 아내를 좋아해서 내 마음에 아내가 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살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좋아하면 마음에 살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내 아들을 좋아하고 딸을 좋아하면, 아들과 딸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내 마음에서 아들과 딸이 사라져버립니다, 실제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오징어 내장 긁어내듯이 싹 긁어내버립니다, 내 마음속을 비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자식도 그대로 있고, 내가 좋아하던 돈도 그대로 있고, 내가 좋아하던 사업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그 좋아하던 것들이 오징어 내장 긁어내듯이 싹 긁어내서 없어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비워지게 하는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해서 마음에 살이 된 것들을 찢어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주님의 살이 찢기신 거예요.
주님의 살이 찢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좋아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찢어져나가는 것인데,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찢겨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워진 마음속에는 이제 오징어순대에서 비워진 오징어 속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소를 채워 넣듯이 그렇게 우리의 빈속으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십자가 이외의 맥락에서도 많이 합니다.
돌아가신 김 수환 추기경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불가에서도 마음을 비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놓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나 수련을 통해서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비워졌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십자가사건에 얽혀있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의 내장이 긁어내지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충실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속 안에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에 대한 정답들을 내 마음에 일깨워주신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하늘의 기운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기 이전에는 오징어 내장이 들어있듯이 이 세상 것들로 가득 들어있던 내 마음속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서 주님의 살이 찢기는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살이 돼버렸던 내 마음이 좋아하는 이 세상 것들이 다 긁어내지고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살아있는 오징어순대가 된다는 얘깁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답만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채워지면 그 정답대로 우리가 움직여가겠죠, 마치 오징어가 바다에서 헤엄치듯이 하늘로 채워진 오징어들이 이 세상을 헤엄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정답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받고 그 정답대로 움직여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심이 분명한데 세상의 영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냥 언뜻 지나가고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세상의 영이 사실은 낯선 단어에요.
세상의 영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은 우리 마음이 처해 있는 처소입니다, 우리 육신이 처한 처소가 이 땅이라면, 모든 60억 인구의 마음이 놓여 있는 차원이 공중이라는 차원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3층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에 있는 우리 마음에 영을 보냅니다, 마치 하나님과 주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듯이.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보낸 영을 받은 자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인데, 세상의 영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은 어떤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늘의 영을 받았을 때는 어떤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영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본문 12절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알게 하심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눈뜨게 한다는 얘깁니다, 맛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즉, 이런 얘기에요.
"아, 완전히 돈 맛을 알았어!" 혹은 "권력 맛을 알았어!" 아니면 "우리 아이가 공부에 눈뜨기 시작했어, 사춘기가 되더니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
이런 의미에서 맛을 알게 한다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복음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특별히 돈에 대해서 남달리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도 그렇게 미치도록 돈을 좋아하는 걸까요?
왜 이 인간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 잘났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목말라할까요?
왜 이 세상에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땡겨할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외제차를 한 대 보면 빙빙 돌아가면서 보더라고요.
외제차가 좋은 거라고 부모가 가르쳤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세상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홍어회 같은 거예요, 홍어회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잔치가 있을 때 홍어회가 없으면 잔치가 아닙니다.

별의 별 음식이 다 있어도 홍어회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홍어회의 맛이 그 분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홍어회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홍어회를 봐도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홍어회가 없다고 해도 아무 아쉬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돈 맛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줘버렸습니다.
돈을 먹어봐서 맛있는 게 아니라, 돈 맛을 집어넣어 줘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보낸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돈 맛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이고, 명품 맛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명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원래 돈 자체가 그 자체로서 그렇게 좋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세상에서 권력이라는 게 그 자체로서 그렇게 좋아해도 괜찮을 만큼 정직하게 말해서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돈과 권력과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느냐?
내 자식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냐 하면,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만 빠져나가면 내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돈을 좋아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찬가지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승천해 계시는 주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을 좋아하게 되고, 천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천국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넌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해결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돈 없어도 살았고, 베드로가 돈 없이도 산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처럼 세상을 좋아하는 상태로서야 어떻게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정답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늘의 기운을 좋아하게 돼있다는 얘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영이 충만한 바다에서 살고 있는 온갖 지저분한 내장을 가득 담고 있는 오징어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그 오징어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마음에서 좋아했던 이 세상, 마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상이 다 긁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살아있는 오징어순대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정답이 현실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면서 우리의 인생은 수백 수천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일등인 최선의 인생으로 하루하루 채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 오징어순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음속에 좋아해서 채워져 있는 이 세상이 다 긁어내지게 하시고, 빈속에 성령님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시므로 이 세상을 살아있는 오징어순대로서 살 수 있는 하늘의 아들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